

캄보디아 김현호, 나혜선 선교사 (유은, 다은, 소은)

2018년의 열 번째 기도편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예레미야 1장 7절말씀

• 사랑빛교회와 단기선교

10월 21~26일, 저희 파송교회인 사랑빛교회에서 15명의 단기팀이 다녀갔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새학기 준비와 단기팀 사역준비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8월에 기도 중에 ‘이웃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아 전도 초청예배 준비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사들과 의논하여 초청장을 만들고, 뚝뚝이를 타고 껌뽕뽕 남, 북을 오가며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팀 도착 후 사역 당일 날에도 남, 북으로 나누어 다시 한 번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찬양은 어른들이 익숙한 캄보디아 가락의 ‘크마에 버리솿’을 준비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어른들만 좋아하실 만한 캄보디아 전통 가락의 찬양입니다. 단기팀이 복음을 엑기스처럼 담아 놓은 무언극을 준비했고, 말씀은 첫 날에 사영리, 둘째 날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 초청 예배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제시간이었습니다. 10월 중 교사들과 아침예배를 드리던 중 알게 된 사실은, 어른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춘다느니, 장례식 때 울지도 못하게 한다느니, 기독교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례를 치른다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초청 예배 때 교제시간을 통하여 다섯 명의 교사들을 그룹별로 투입 시켜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



누며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전도초청예배 첫 날)
전도초청 예배 첫 날에 어른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심지어 앓을 자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찬양을 드리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극이 진행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제 시간이 되어서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많이 오시면 40~5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교사 한 명당 8~10명과 둘러 앉아 교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명 가까이 어른들이 오셔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뒤쪽 바닥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더구나 준비한 과일도 부족해서 팀을 위해 준비해둔 과일까지 모두 냈지만 역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둘째 날 집회 초청을 하면서 어른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둘째 날 점심 식사 후 기도회를 하고, 또 다시 팀과 선생님들이 함께 남 북으로 갈라져 전도책자를 들고 어른들을 초청하러 나갔습니다.

(위 사진 : 전도초청 예배 찬양, 아래 :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

중고등부 아이들이 작년 성탄절과 올해 부활절에 했던 Awesome God 위십을 하겠다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못하게 했는데, 오후 시간에 열심히 연습하여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집회 시간이 되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어른들이 20~30명 정도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를 채워 예배당이 어른들과 함께 온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팀에서 무언극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첫째 날 인

파에 묻혀 잘 못 보시 분들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공연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분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30명 정도가 일어나셨고, 영접기도를 따라하셨습니다. (사진: 일어나신 분들 영접기도 중)

교제 시간이 되어, 처음 계획 했던 대로 교사들이 성인들과 둘러 앉아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껌뽕뽕 비전교회의 일원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워십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교사들에게 등록리스트를 받았는데, 모두 23명의 어른들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셨습니다. 목, 금요일 팀과 함께 문화탐방 일정이 있어서 교사들에게 등록하신 분들 심방을 맡기고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문자로 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방을 다녀왔으나 등록하신 분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3명 중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날 마을 행사가 있어서 마을 어른들이 모두 그 곳에 갔다고 합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등록하신 23명 중 몇 분이나 오실까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되어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는데 아쉽게도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심 사탄의 권세가 그분들을 쉽게 놓지 않는다는 사실에 약이 오르기도 했고, 기도가 부족하여 그분들이 오시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기도로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피 값을 받기로 인정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로 작정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영접기도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은 할 수 있는한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 드린 그 영혼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명감이 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 영적인 전쟁을 홀로 감당하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싸워 줄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26일(금) 저녁 식사 후, 사랑빛교회 팀과의 마지막 일정으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감을 나누는 것을 들으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위해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군사들을 모집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소감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뽕뽕 비전교회에서는 전도초청 예배가 잘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제게 와서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갔고, 10월 초부터는 새벽예배도 잘 나오지 않아서 혼자 앞드려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낙심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 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며 이번 단기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기에 전도초청 예배 첫날에 효과적으로 오신 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예배한 전도초청예배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맛보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맛 본 승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선 광야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검뽕뽕 비전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구원에 대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중비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달의 기도제목

1. 11월 2일 새학기 시작으로 입학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장단과 학부모, 학생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임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11월 17일 기독교 장례 연합회 모임이 껌뽕뽕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12까지 진행되고, 예배, 회의, 중보기도,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목사님들 식사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11월 21~23일은 캄보디아 물축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중고등부 성경통독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11월 16일에, 전에 캄보디아 몬돌끼리에 1년 정도 계셨던 김종익 목사님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십니다. 단순 방문 목적이 아니라 제가 주 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전도사역을 돕고자 하십니다. 목사님과 연합하여 전도 사역에 열매 맺기를 기도해 주세요.

**연락처 : 캄보디아 (855)12-243-182 김현호 선교사 (카톡아이디 : acts1005)
(855)92-327-201 나혜선 선교사 (카톡아이디 : isearun)

**파송교회 : 사랑빛교회 (백석) 담임목사 오성민
(031)443-8999 www.loveray.or.kr

**파송노회 : 백석 수도중앙노회